

2015
02



특별기고
일본은 왜 한국과 다른가

언론중재위원회 NEWS

언론 사람

제176호



언론중재위원회



Contents

- 03 **詩** 겨울밤
- 04 **특별기고** 일본은 왜 한국과 다른가
- 07 **위원단상** 쿠키리칼과 냉이
- 08 **음식 이야기** 떡국 이야기
- 09 **신 동의보감** 담배와 도파민
- 10 **국악산책** 국악계의 외국인단, 비개비
- 11 **조정후기** 블로그가 만든 맛집
- 12 **직원마당** 슈퍼맨이 돌아왔다?
- 13 **위원회 소식/위원동정**
-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 15 **독자마당**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등 발행일 2015년 2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디자인 (주)임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pac.or.kr
- 모바일웹 m.pac.or.kr
- 조정중재아카데미 edu.pac.or.kr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
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
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
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 뉴스 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
부를 심의합니다.



ADR 전문교육 & 언론 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
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겨울 밤

밤늦게 까지 아들의 퇴근을 기다리더니
 오늘은 초저녁부터 혼곤하게 주무신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부쩍 수척해지신 어머니
 한참을 바라보다가

우리 육남매 낳아 준 엉치뼈
 유치원생처럼 졸아든 키
 한없이 가벼워진 몸, 주물러드린다
 아이고 시원타 연발하면서도
 이제는 뻘다고 자꾸 아들 생각하신다

아내는 방에서 연속극 보고
 아이들은 제 방에 처박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겨울밤,
 한때 열두 식구 북적거리던 식구들
 제 길 찾아 이승으로 저승으로 떠나고
 어머니와 단 둘이 앉아
 옛이야기 나누는 겨울밤.



강경호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함부로 성호를 긋다』 『휘파람을 부는 개』 외 다수
 문학평론집 『휴머니즘 구현의 미학』, 미술평론집 『영혼과 형식』
 2010년 한국시인협회 젊은시인상을 수상
 현재 계간 《시와사람》 발행인 겸 주간

일본은 왜 한국과 다른가

조명철

고려대 사학과 교수 / 고려대 박물관 관장



1. 이해할 수 없는 일본

최근 한국과 일본은 독도, 위안부, 역사교과서, 과거사를 둘러싸고 감정적인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외교관계도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한국인의 반일감정은 원천적으로 30년이 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국가를 상실한 민족적 굴욕에 기인하고 있지만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 국가간의 화해를 이루지 못한 이유를 굴욕의 역사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한국인에게 일본은 여전히 의문 투성으로 가득찬 나라이기 때문이다.

같은 아시아권에 있으면서도 일본만의 특이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본인은 왜 천황을 신처럼 모시는가. 고대 제정일치 시대라면 모를까. 천황이 평범한 인간으로 밝혀진 지금에도 천황에 대한 특별한 관념은 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천황을 비난하는 기사는 물론 천황을 코미디나 농담의 소재로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쇼와천황은 아직 신이 되지 못했지만 그전의 메이지 천황은 이미 신이 되어 신사에 모셔져 있다.

그렇게 보면 가는 곳마다 신사가 널려있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원래 불교국가인 일본에 절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토속신을 모시는 신사가 전국에 8만에 이르고 등록되지 않은 신사까지 합치면 정확한 수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이다. 더욱이 그 많은 신사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없이 모두 유지되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첫인상은 도쿄같은 대도시의 깨끗함과 사람들의 친절이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촌에 가보면 도쿄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란다. 파리의 세느강이 오물로 뒤덮여 있던 시기에도 인구 100만명의 에도(江戸)는 서양인이 보고 기절할 정도로 깨끗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몸에 밴 일본인은 스스로도 청결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고대에 다양한 목욕 시설이 있었고 중세에는 한증막까지 존재했다. 에도시대가 되면 대중목욕탕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한국

의 대중목욕탕이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일본인의 친절은 세계가 인정하는 대목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예의바른 일본인은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순진한 한국남성들이 처음 보는 일본여성의 지나친 친절에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일도 종종 있다. 보통 일본인보다 몇배는 친절한 백화점의 여점원에게 걸리면 빈손으로 백화점을 나오지 못하는 것이 착한 한국남성의 속성이다.

하지만 그렇게 상냥한 일본인이 한국을 침략하고 미국을 상대로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접하면 당혹스러워진다. 일본은 1931년 만주를 점령하고 6년 뒤에는 중국 본토를 휩쓸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한 도시에서만 30만명을 학살하는 잔혹함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몰고 미군함에 돌진해서 자폭하는 가미가제 특공대에 전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렇게 친절하고 유순한 일본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잔인해지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린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밖에도 일본에 관한 궁금점은 얼마든지 더 있다. 순진한 어린 아이들이 친구를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이치메(집단 따돌림) 현상, 성숙한 독서 풍토 속에서도 만화에 심취해 있는 일본인, 명확하게 노(NO)라고 말하지 못하는 일본인, 지진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놀랄 정도로 질서를 잘 지키는 일본인.

2. 일본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

국가와 민족이 다르니 한국과 일본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한국인은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는 현재

에 있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정치, 외교,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풀어야 할 문제를 너무 많이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갖가지 행태를 충분히 납득하지 않고서는 일본에 대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붙어있기 때문인데 그런 이유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지구 반대편의 아마존 지역에 사는 어느 부족에 대한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인은 일본에 대한 모든 의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싶어한다.

두 번째로 한국인은 대부분 일본이 지역적으로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한국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한국인의 조상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 일본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에도 과거 한일 양국의 조상이 같다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 있었지만 이 논리는 조상이 같으니 굳이 민족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일종의 민족말살 정책에서 나왔다. 하지만 한국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한국과 일본의 조상이 동일하다는 의미보다는 일본은 우리 조상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다라는 생각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일본은 우리 조상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일본의 본질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편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본의 특수성은 본래의 모습에서 변질되었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짓는다. 이런 믿음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다.

실제로 역사시대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로부터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물론 남방 해양이나 북쪽 홋카이도를 통해서도 적지 않은 인간이 일본열도로 들어왔겠지만 새로운 역사나 고급 문화를 만들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중국대륙으로부터 일본열도로 직접 건너가는 경우도 당시의 항해술로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일본에 고급 문화를 전파할 정도의 대규모 이주는 한반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좀더 나가면 일본은 결국 우리 조상이 바다를 건너가 만들었다는 주장에 자연스럽게 다다른다.

우리 조상이 일본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한국인에게에는 상식적으로 보여도 일본인에게에는 민족적 자존심과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궤변이다. 하지만 일본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기는커녕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천황이 어떻게 신

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과 '천황은 당연히 신이 될 수 있다'는 세계관의 간극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느냐'는 힐책과 '어떻게 자신의 속내를 그렇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느냐'는 반문 사이에 존재하는 사고방식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

3. 일본을 설명하는 '틀'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틀(방식)이 필요하다. 이 틀은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표출된 현상과 내재된 본질을 동일한 논리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인은 청결함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매일 목욕을 한다. 일본민족은 순수한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고대부터 지금까지 만세일계 천황이 다스려왔다. 일본 요리는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사시미와 생선초밥이 발달했다. 원인과 결과가 도착되어 있고 현상이 본질을 미화시키는 말도 안되는 설명방식이다.

원인과 결과, 현상과 본질을 한번에 모두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여기서 2천년간 일본인의 삶의 터전이었던 '지형'을 분석의 틀로 제시해본다. 지형은 땅의 겉모양으로 산과 강, 평야 같은 것들이다. 우선 지형 중에서 산과 강만 간단히 살펴본다.

얼핏 보기에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분이 가지 않듯이 일본의 산과 한국의 산도 비슷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 국토의 80퍼센트 이상 산지이고 평야가 별로 없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이 완전히 다르듯이 산도 그렇다. 남한에는 2천미터 넘는 산이 없지만 일본에는 3천미터 넘는 산이 여러

개 있다. 한국은 설악산을 비롯해 오르지 못할 산이 하나도 없지만 일본은 등산 가능한 산과 불가능한 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만큼 산이 험악하다. 한국은 바위산이 많아 등산 중에도 시계가 확보되지만 일본산은 숲이 우거져 산 속에서 길을 잃기 십상이다. 이것만 보아도 일본의 산과 한국의 산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은 전형적인 노년기 지형으로 침식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완만한 구릉형태의 낮은 산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바위산이 전국에 널려있다. 반면 일본은 침식의 초기 단계인 유년기 지형이라 바위산이 별로 없고 산들이 험악하고 계곡은 깊어 동네 뒷동산도 쉽게 오를 수 없다. 해발 836미터의 북한산을 매주 올랐다고 해서 일본산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한국의 산과 일본의 산은 그저 '山'이라는 문자를 같이 쓸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존재다. 등산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자 친구를 3년이나 기다리다 그 산 앞에서 '오겐키데스카'라고 작별인사를 보내는 여자의 절규는 일본산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아야 공감이 된다(영화 '러브레터'의 라스트신).

강 또한 한국과 일본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노년기의 한국 강은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완만하게 흐르다 보니 강폭은 넓어지고 수량은 많아지고 꾸불꾸불 S자 형태로 흘러간다. 이에 반해 유년기의 일본 강은 2천미터의 고지에서 출발하는데 바다까지의 거리가 매우 짧다. 이런 이유로 일본 강은 급경사를 매우 빠른 속도로 직선에 가깝게 흐르다 보니 좁은 강폭에 급류를 형성하게 된다. 배를 띄울 수 없는 일본의 강을 보면서 자란 사람이 충주에서 한양까지 조세미를 싣고 120km를 왕복한 조세 운반선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일본의 산은 높고 계곡은 깊으니 인간이 산을 넘어 어디론가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하천도 인간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은 산이나 강이나 인간이 넘지 못할 절대적인 장벽은 아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수월하게 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처럼 산과 강은 근대에 이르러 터널을 뚫고 교량을 놓아 평탄한 길로 바뀔 때까지 인간의 삶을 규제하는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극복할 수 없는 조건 앞에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순응하는 길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순응하지 못할 경우 도태당해야 했다. 타협불가능한 조건으로서 산과 강은 인간의 삶에 어떻게 얹히는가.

4. 지형으로 풀어보는 일본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 산과 일본 산의 차이는 영화에서 공감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강이 다르면 강의 노래가 달라지고 시가 달라진다. 이처럼 산과 강에 대한 서로 다른 느낌과 관념은 전혀 다른 문화를 탄생시킨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지형의 차이는 곧 양국의 문학의 차이로 이어진다. 특히 일본에서는 산과 강을 경계로 서로 고립된 지역들이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한다. 실제로 중국 역사서 '한서(漢書)'의 '지리지 연지조(地理志 燕地條)'에 "낙랑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왜인들이 있는데 백여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夫樂浪海中有倭人 分爲百餘國)"고 기술한 지역은 일본 전체가 아니라 놀랍게도 규슈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떻게 규슈에만 백여 개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 '한서'의 필자도 중국에서 볼 수 없는 너무도 특이한 현상이라 기록에 남겼을 것이다. '한서'에는 "산과 섬을 의지해서 나라를 만든다.(依山島爲國)"는 기록도 있는데 산을 경계로 이 쪽과 저 쪽에 다른 나라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미 한반도에서는 지역이 광범위하게 통합되어 삼국시대에 들어

섰는데 일본에서는 통합은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각 지역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분열되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세력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무사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지형 때문에 생겨난 제약으로 일본은 근대에 이를 때까지 수십에서 수백에 이르는 독립된 세력으로 잘게 세분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지방분권의 형태이고 아시아에서 찾아보기 힘든 봉건영주제를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역사적 차이는, 한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 국가에 의한 강력한 전제왕권, 중앙집권체제가 등장하는 반면에 일본은 서양의 봉건영주제에 유사한 다이묘(大名) 영주제, 지방분권제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방분권적인 사회구조는 지형의 특성이 초래한 결과지 일본인이 창안해낸 통치제도가 아니다. 만약 이런 현상을 놓고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유럽식의 역사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한다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민족의 우월성을 호도하는 거짓논리가 만들어진다.

일본을 통일한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왜 전국을 다시 2백 명이 넘는 다이묘에게 나누어주는 바보같은 짓을 했느냐는 질문이 천 년 이상 지방분권적인 사회만 살아온 일본인에게서는 더이상 질문으로 성립하지 못한다. 이미 천 년 이상 중앙집권적인 역사만 경험한 한국인에게 실재는 분열되어 있지만 동시에 일본이라는 강력한 정체성을 지닌 일본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겠는가.

한국이 일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설명보다는 일본적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틀'을 되도록 많이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필자소개

고려대 사학과 석, 박사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박사
일본사학회 이사, 역사학회 이사
고려대 사학과 교수
고려대 박물관 관장

주요 저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4권』, 한일역사공동위원회, 2005. (공저)
『기억의 전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공저)
『일본인의 선택』, 다른세상, 2002. (공저)
『일본근세근현대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공저)
『해양제국의 침략과 근대조선의 해양정책』,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공저)

쿠크리칼과 냉이



지연옥 위원
서울제2중재부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

지난 연말에 택배가 하나 왔다. 사과 상자보다 큰 박스 안에는 냉이와 달래가 가득 담겨져 있었다. 땅이 쫄쫄 언 겨울에 캐기도 힘들었을 산나물을 짹짹 눌러 담아 보낸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공직에 재직 중일 때도 주말이면 산과 강을 찾아 송이랑 산나물을 따거나 낚시를 즐기던 그 친구는 퇴직하고 나서는 아예 강원도 화천 파로호 뒤흘 골짜기에 터를 잡고 유유자적 자연과 살고 있다.

물에 씻어낸듯한 냉이 이파리들은 싱싱했고, 굵고 긴 뿌리는 마치 장뇌삼 같았다. 가냘픈 달래 또한 즐기 하나 다친 게 없었다. 추운 겨울에 그걸 캐느라 고생했을 그 친구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이 많은 걸 소비하려면 내가 길가 좌판이라도 해야겠어.” 핸드폰 속 내 감사의 말에 그 친구는 넋지시 말했다. “캐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흙 털어내려고 찬물에 여러 번 헹구는 게 힘들었다는 것만 알아주라. 물론 그것도 쿠크리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며칠 전, 간암으로 세상을 등진 다른 동창의 빈소에서 이 친구를 만났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분위기기도 좀 바꿀 겸 내가 물었다. “쿠크리칼은 잘 쓰고 있니?”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친구는 버섯도 따고, 나뭇가지도 자르고, 잡풀도 베고 하며 신이 나서 떠들었다. 그 쿠크리칼은 10년 전에 내가 네팔 여행에서 사다 준 거였다. 그 칼이 산사나이에겐 꼭 필요한 도구라며 한 자루만 사다 달라는 그 친구의 부탁 때문이었는데, 그때 내가 사 온 쿠크리 두 자루를 그에게 다 건네주면서 하지 못했던 뒷얘기를 그날 나는 장례식장에서 털어놓았다.

그 칼이 그리도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것을 내가 안 것은 카트만두 시내 타멜 관광지구에 있는 쿠크리 전문점에서였다. 상점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크고 작은 황금색 칼들에게 압도되었다. 약간 타원형으로 흰 청동 칼날과 갈색 나무 손잡이가 멋진 조화를 이룬 수많은 쿠크리들이 벽에 달린 작은 선반 위에서 그 도도한 자태들을 뽐내고 있었다. 칼이 아니라 예술품인 저 쿠크리가 설마 구르카 용병들의 무기였을까 싶었다.

다양한 크기 중에서 나는 칼날과 손잡이까지 길이 35cm 정도 되고, 디자인만 좀 다른 것으로 두 자루를 샀다. 한 자루는 그 황홀함에 넋을 잃은 내가 갖고 싶었던 것으로 칼날에 용트림하는 용이 새겨진 아주 멋진 것이었다. 값은 우리 돈으로 개 당 약 3만원. 그러나 10년 전 당시 네팔의 대학교수 월급이 5만원이었으니 대단한 고가품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설렘으로 사들고 온 쿠크리였건만, 문제는 인천공항에서 터졌다. 짐을 찾기도 전에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내 이름 때문에 나는 사무실로 달려가야 했다. 길이가 20cm 이상인 칼은 무기로 분류되어 반입 금지 품목이란 게 직원의 설명이었다.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압수한다는 통보였다. 분통터졌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그 친구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라고 하는 나이프 수입업체에 교통비를 주고 부탁하면 수입허가증을 들고 가서 찾아다 준다는 거였다. 역시 신속하게 고스란히 잘 찾아온 수입업체는 그러나, 교통비 외에 세금, 허가증 사용비 등 개당 22만원, 즉 44만원을 내게 청구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나는 4만원을 깎아 내 칼을 다시 40만원 주고 사야 했다. 나중에 그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실제로 내가 사 온 것과 같은 것이 개 당 30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내가 그런 사실을 그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저 교통비만 지불한 줄 알고 두 자루를 다 달라고 내게 애원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그래, 어차피 선물하기로 한 건데 필요한 사람이 갖는 게 맞지 하며 나는 선뜻 두 자루를 다 건네주었다. 그때 네팔 트레킹은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간 산악인 박영석의 매니저를 따라 간 거였는데, 앞으로 자주 가지는 약속을 했고 그럴 수 있을 거라 단호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다 전해 듣고 난감해 하며 파로호로 돌아간 그 친구가 일주일 후에 냉이 한 상자로 그 마음을 전해 온 것이다. 나는 좋은 연말 선물이다 싶어서 한 움큼씩 비닐봉투에 담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며 뜯금없는 냉이 달래 잔치를 벌였다. 싱싱하고 향 좋고 맛 좋고 귀한, 이제껏 먹은 냉이된장국 중 최고였다는 지인들의 인사를 들으며 생각했다. 그 친구에게 다른 종류의 쿠크리를 더 사다 주어야겠다고. 물론 네팔은 아직도 다시 가지 못하고 있지만….

떡국 이야기

김영복
전통식생활문화연구원장
칼럼니스트



새해 설날에 세찬으로 먹는 떡국을 ‘병탕(餅湯)’ 또는 ‘병갱(餅羹)’이라 하였고,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한다고 해서 ‘첨세병(添歲餅)’이라고도 했다.

산동(山東)의 태수 가사협(賈思僊)이 439년에서 525년 사이에 저술한 『제민요술(濟民要術)』에는 밀가루로 만든 병(餅)을 분류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탕병(湯餅)이 있어서 수인병(水引餅)·기자면(基子麵)·혼돈(餛飩)·박탁(饽飩)을 탕병의 항목에 넣고 있다. 이 중 수인병은 밀가루 반죽을 가는 막대모양으로 비벼 만들어 얇게 늘려서 삶아낸 것으로 당대(唐代)에 불탁(不托)의 칼국수로 발전하였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수명이 길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칼국수를 더욱더 가늘고 길게 만들어 장수면(長壽麵)이라 했다.

기자면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가래떡처럼 둥근 막대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얇게 썰어서 건조시켜 두었다가 끓여먹는 소위 밀가루 떡국이다.

한반도에서의 밀은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귀한 곡식이었기 때문에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로 만든 떡을 병(餅)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리하여 기자면의 재료였던 밀가루 대신 멥쌀가루를 채택하여 생겨난 것이 소위 가래떡이며, 이것을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탕병이다.

선달 그믐날 세신에게 올렸던 가래떡을 육류와 합하여 하나의 냄비에 담아 끓인 다음, 모든 식구들이 음복함으로써 복을 받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 제석에 떡국 먹는 풍습이며, 설날 아침에도 떡국을 끓여 먼저 조상께 올리고, 모든 식구가 음복하는 것이 바로 병탕인 떡국이다. 조선 왕조에서도 선달 그믐날 돌아오는 해의 맹춘대길(孟春大吉)을 기원하는 납향대제(臘享大祭)를 치러 만물의 영(靈)을 불러 모아 은혜에 감사하고, 양(陽)을 상징하는 가래떡을 길고 가늘게 만들어 식구들 개개인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면서 돌아오는 맹춘대길(孟春大吉)을 기원하는 것이다.

1849년(현종15년) 9월 13일에 홍석모(洪錫謨)가 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떡국을 ‘백탕(白湯)’ 혹은 ‘병탕(餅湯)’이라 적고 있는데, 즉, 길모양이 희다고 하여 ‘백탕’이라 했으며, 떡을 넣고 끓인 탕이라 하여 ‘병탕’이라 했다”고 나와 있다.

또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좋은 쌀을 뽕아 체로 쳐서 고수레한 다음 시루에 찌서 안반 위에 놓고 떡메로 친다. 약간씩 떼어 손으로 비벼서 둥글고 길게 문어발 같이 늘이는데 이것을 권모(拳摸)라고 한다. 먼저 장국을 펴펴 끓이다가 돈 모양으로 자른 떡을 넣은 뒤 끈끈하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못하도록 알맞게 끓여 돼지고기, 쇠고기, 꿩고기, 닭고기 등을 섞어 끓이기도 한다. 제석(除夕)에 식구대로 한 그릇씩 먹으니 이것을 떡국(湯餅)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떡국은 국물이 맛있어야 하므로 소의 사골, 양지머리, 사태 등을 고아서 국물로 사용한다. 고기는 편육으로 썰어 얹고 잘게 찢어 양념하여 지단, 김, 오이나물, 실고추 등과 동시에 고명으로 얹는다. 때로는 쇠고기 산적을 작게 하여 올려 술안주로 내고 후춧가루를 약간만 뿌려 먹도록 한다.



담배와 도파민

김태균
한의원



새해가 들어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담배를 끊으면 금단증세가 오는데, 머리가 멍해지고 불안, 초조, 짜증, 분노가 생기며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고 몸이 무거워진다. 담배의 니코틴은 뇌 속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금단증상은 도파민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증상이다. 만일 도파민이 분비가 적게 되면 신경의 활력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찾아온다. 초콜릿은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므로 금연 보조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평소 도파민 분비가 많으면 활동적이고 모험적이고 쉽게 흥분하게 된다. 반대로 도파민이 결핍되면 결단력이 없고 우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적인 성향의 사람일수록 금연을 빨리 하는 것이 유익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다소 천천히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금연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세계적인 뇌신경학자인 이안 로버트슨은 「승자의 뇌(Winner Effect)」라는 책에서 도파민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다. 대개 일반적인 짐승들의 집단에서 서열이 높을수록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고, 서열이 낮을수록 도파민은 적게 분비되는 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많이 분비된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winner)일수록 과도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승리의 쾌감을 느끼게 되며, 패자(loser)는 도파민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비활동적이 되며 우울함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직장이나 모임에서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도파민 분비가 많아져서 더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과도한 도파민은 권력에 심취하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고 더 많은 힘을 원하게 된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우론이 만들었던 ‘절대반지’는 절대적인 권력을 얻게 하지만 절대적인 탐욕에 빠지게 한다. 반지를 사용한 자는 흑암의 왕이었던 사우론이 그 힘을 느끼고 반지를 찾아내고 결국 반지를 가진 자를 파멸시키게 된다. 반지의 주인은 권력을 얻게 되지만 점차 탐욕으로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 하지만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금단현상이 온 듯 골름처럼 아무런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변해버리고 만다.

도파민도 그와 비슷하다. 도파민이 왕성한 사람은 삶 속에 희열을 느끼고 흥분을 느끼고 에너지를 느끼지만, 빨리 노화되며 쾌락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독재적으로 변해가게 되고, 반면 도파민이 적은 사람은 무기력 속에서 우울해지며 아무런 삶의 의욕이나 힘이 없어지고, 몸은 굳어가고 떨리게 된다.

금단증상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삶 속에서 활력의 근원을 찾는 것이다. 보람 있는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며 작은 일에도 자족(自足)하며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과 사랑하며 평화를 누리려 노력을 한다면 몸 속에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한의원에서는 금연(禁煙)침으로 금연을 도와줄 수 있다. 귀에 이침(耳鍼)을 부착하여 금단증상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데, 이침을 붙이게 되면 담배욕구가 줄어들고 안절부절못하는 금단증상을 해소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평소 성격이 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년의 남성들은 금연침을 맞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이 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평소 바나나, 초콜릿, 아몬드 같은 간식을 먹는 것이 좋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함께 녹황색 야채를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50대에 금연을 하게 되면 평균수명이 6년이나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올해에는 꼭 금연을 성공하자.



국악계의 외인구단, 비개비



김문성 차장
교육콘텐츠팀

“침묵하고 인내하고 고요의 세계에 몰입하는 법을 배우려 춤을 추었다.” 한때는 법무부 수장이었던 강금실 변호사는 국악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곱지 못한 시절, 그렇게 거거리 춤에 빠져 들었다.

“판소리는 감정과 배경 등 모든 것을 껴야 이면을 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재판과 닮아있다. 그래서 소리에 빠졌다”는 민일영 대법관은, 임명 직후 판소리의 매력을 묻는 한 기자에게 서슴지 않고 ‘서시동시론’* 으로 국악의 맛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법관이 생방송 중 양복바람으로 홍보가를 부르고, 장관은 흐느적거리는 맛이 일품인 기생 거거리춤을 추는 나라. 한 때는 천한 광대나 기생의 예술로 치부되던 국악이 이제는 생활음악이자 국위선양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국악기 하나쯤은 배워보고 싶은 욕구가 보편화된 시대에 걸맞게 많은 비개비가 양산되고 있으며, 그들이 판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국악계에서는 금줄을 달 때부터 소리를 접하고, 소리로 생계를 잇는 전문소리꾼을 ‘개비’(甲伊), 어느날 갑자기 소리에 미쳐 소리판에 뛰어든 일반인을 ‘비개비(비甲伊)’라 구분하여 부른다.

대표적인 비개비로는 우리 위원회 중재위원을 역임했던 강금실 변호사를 꼽을 수 있다. 부산지법 판사시절, 무시로 진주 명기 김수악(1926~2009)을 찾아가 그녀의 거거리춤, 검무 등을 사사받았다. ‘춤꾼보다 춤을 더 잘 춘 판사’라는 애칭과 함께 ‘법복보다는 남색 치마에 미색저고리를 입고 웃음을 흘리며 자주고름 나풀거리는 모습이 더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늘 따라다녔다. 그녀 역시 ‘장관이 안 되었으면 전통무용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전문 춤꾼들이 5년 혹은 그 이상 걸려 배우는 거거리춤을 3년 만에 떼자 김수악은 ‘판사고 뭐고 다 때려치이뿌고 내 옆에서 춤이나 춘나’고 그녀의 춤 실력을 인정했다. 비개비 중의 갑으로 꼽힌다.

민일영 대법관 역시 국악의 끈을 놓지 않는 대표적인 비개비로 유명하다. 많은 국악인들은 “조금만 더 일찍 국악에 빠졌더라면 대법관이 아닌 풍류방에서 한량으로 살고 있을 법조인”으로 술회한다. 영화 서편제가 계기가 되어 비개비의 길을 걷고 있는 민일영 대법관은 대법원과 집 다음으로 국악 공연장을 많이 찾는다. 송순섭 명창이 2011년 국립극장에서 5시간 동안 수궁가를 완창할 당시 내내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판소리 중 홍보가 ‘화초장대목’을 잘 부른다.

강금실 변호사나 민일영 대법관과 달리 아예 국악계 일원이 되어 활동하는 비개비도 많다. 창작음악계의 대부 항병기가 대표적이다. 산조라는 정형화된 가야금 연주를 넘어 새로운 주법으로 ‘침향무’, ‘미궁’, ‘비단길’ 같은 주옥같은 작품을 선보였다. 국악에 문외한인 사람들조차도 그의 창작곡 한두 곡쯤은 익히 알고 있다. 고교시절 취미로 접한 가야금에 빠져들고 있던 그에게 서울대 법대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타이틀이었을 뿐이다.

최근 월산문화상을 수상한 이소라 역시 국악계의 대표적인 비개비 국악인이다. 서울대 법대 입학 당시 1백여 명의 학생 중 유일한 여학생으로 유명했다. 사법시험 준비차 절에서 공부하던 중 풀벌레 소리에 필이 꽃혀 법학도의 꿈을 접고, 그 길로 음악도로 전향한 케이스이다. 각 지방의 농요를 오랫동안 연구하는 등 토속민요 연구가로서 많은 족적을 남기고 있다.

이들 말고도 많은 비개비들이 국악계 복판과 변죽을 부단히 오가고 있다. 무엇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외로움의 늪이라 부르는 국악계로 끌어들이일까? 길가의 잡초조차 쳐다도 안 본다는 비개비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국악의 매력은 무엇일까?

*서시는 중국 월나라 미녀로 위장장애가 있어 미간을 찌푸리고 다녔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추녀 동시가 그것이 서시의 매력인 줄 알고 똑같이 미간을 찌푸리고 다니다가 결국 망신을 당했다는 일화로, 우리 음악이 무작정 서양음악 흉내내기만 하느라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유한 것임

블로그가 만든맛집

일반인에게 식도락이라는 취미가 퍼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소수 특권층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고급 취미였는데, 1980년대 후반 마이카 열풍으로 국내여행객이 늘 어남에 따라 일반인들도 전국 각 지역의 특산물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외국과의 교류 증대로 유입된 세계 음식 또한 일반인들이 미식에 흥미를 갖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식도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생겨난 것이 TV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맛집 소개 방송은 점차 맛집 광고로 변질되어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갔고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블로그이다. 블로거들은 음식점에 찾아가 음식을 맛본 후 자신의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후기를 남긴다. 그러나 맛집 방송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일기장 같은 블로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블로그 맛집 포스팅의 문제점을 보도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에 관한 조정 후기를 써보고자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음식점 주인들이 돈이나 음식을 제공하면 블로거들이 허위, 과장된 내용의 포스팅을 하는 인터넷 맛집의 실태를 보도했다. 또한 일명 ‘블로거지’의 등장, ‘바이럴 마케팅’의 폐해 등 블로그 맛집 포스팅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음식점을 골라 전문가 2명과 함께 방문하여 음식을 맛보고, 블로그 후기와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그런데 해당 음식점 주인이 방송을 보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신청인 주장의 요지는 이러했다. 해당 방송은 신청인이 만든 음식을 엉망인 것처럼 묘사했으나 해당 음식의 요리법은 두 종류가 있고, 신청인은 전통방식으로 원재료를 손질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은 포털 검색 시 신청인 음식점이 블로그 페이지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 후기를 가장하여 광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해당 블로그의 후기와 실제 방문 시 음식의 맛 및 위생상태가 차이가 있어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중재부는 해당 사안을 파악하고 당사자 설득에 들어갔다. 블로그 맛집 포스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프로그램의公益性은 인정되는 바이나 신청인 음식점이 블로그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데 반해 해당 방송으로 신청인의 영업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취재 시 좀 더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의견을 존중했고,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세 라
서울제2중재부 조사관

드라마, 영화, 예능을 막론하고 먹방이 유행 중이다. 이에 따라 맛있는 음식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져 보이는 요즘 이런 유행에 일조하고 있는 블로그 맛집에 대한 지적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방송이 신청인에게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업체 선정 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음식점의 모자이크 처리 등을 확실하게 했다면 더 충실한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윤치경 차장
예산회계팀

“아빠 어이저? 뽀뽀옹구? 쿠모크르코?”, “엄마 뽀뽀뽀뽀옹잉 쿠르쿠마.”

토요일 아침 7시경. 창밖은 아직도 어둑어둑한데, 주말에도 예외 없이 생후 21개월인 그녀들의 대화가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서영 : 아빠 어디 있지? 깨울까? 그냥 우리끼리 놀까?

수연 : 엄마 깨워서 놀자.

분명 이런 뜻이었을 거다. 다행이다. ‘여보 고생해’라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는데 와이프의 외마디가 귓가에 꽂힌다.

“여보!”, “응? 아가들~아빠랑 놀까.”

요즘 아빠들의 좌충우돌 육아 일상을 다룬 프로그램이 인기다. 특히 하나도 아닌, 쌍둥이에 삼둥이까지 아빠 홀로 척척 돌보는 ‘슈퍼맨’이 등장한 것이다. 사실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영 초기에는

반가운 마음이 컸다. 조금은 특별한 쌍둥이 육아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늘어 양해와 이해를 구하기가 쉬워졌고, 다둥이 아빠만의 ‘행복한 고충’을 공유할 수 있어 힘이 됐다. 그런데 방송이 회를 거듭할수록, ‘브라운관 현실’은 ‘나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와이프를 여행 보내고 애들을 봐야 하나’하는 심리적인 부담이 생겼고, ‘방송카메라 너머에는 아이 엄마 대신 분명 스태프나 도우미 이모가 도와주고 있을거야’하는 근거 없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진짜 슈퍼맨도 혼자서 돌볼 줄 몰랐을지 모르는데, TV에서는 ‘육아기능 탑재된 슈퍼맨 아빠’들이 요리까지 해보이며 누구나 하는 것처럼 방영하고 있으니, 내 자신이 불량 아빠라는 자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착각이라도 필요했다.

딸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슈퍼맨 아빠’ 이상으로 아이들을 잘 돌볼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다. 조카 6명을 돌본 경험이 내 밑천이었다. 한때 ‘엄마와 아이의 친밀감이 아이의 인격 형성을 좌우한다는데, 딸들이 아빠만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한 적이 있을을 고백한다. 아가들에게 시간 맞춰 우유 주고, 품에 안아 재우며, 기저귀를 갈아줄 때에도 행복감을 느끼는 내 모습을 보며 ‘이러다 엄마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거 아닌가’하고 걱정했더란다. 적어도 사랑스러운 그녀들이 한밤중에 한두 시간마다 번갈아가며 일어나 울기 전까지는, 그녀들의 몸무게가 10kg이 넘어 안을 때마다 팔과 허리가 아려오기 전까지

는, 그녀들이 기저귀 갈다가 도망가기 전까지는 그런 고민은 유효했다 (솔직히 기저귀 갈 때 ‘다다다’ 뛰어가는 모습은 귀엽다. 그러나 기저귀로부터 자유를 줄 때마다 낭패를 겪어야 했기에, 귀여운 건 귀여운 거고 기저귀는 무조건 채워야 한다는 철칙이 생겼다).

아기들의 월령이 늘어갈수록, 엄마들의 손목과 허리가 왜 시큰한지, 엄마들의 목소리가 왜 점점 높아지는지, 엄마들은 왜 ‘자유시간’을 그토록 원하는지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마 다둥이 아빠가 아니었다면, 아가들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부터(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는 여성의 ‘엄마 되기’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의반 타의반 여느 아빠보다 밤잠을 더 포기해야 하고, 한번 불러줄 노래를 각자의 기호에 따라 두 번을 불러줘야 하고, 동시에 울고 있는 두 아이 중 누구를 먼저 안아줘야 할지(물론 우리 딸들은 서로 엄마에게 가려고 하지만),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불러줘야 할지, 장난감을 서로 갖고 있다고 다룰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등 매번 크고 작은

고민과 선택의 순간에 놓이다보니, 말 한마디 통하

지 않은 아기들의 뜻을 헤아려가며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일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강도라는 사실과, 그동안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기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몸이 힘들 때엔 늘 마음속으로 ‘빨리빨리’를 재촉했다. 아가들이 누워만 있을 때는 빨리 기어 다녔으면, 기어 다닐 때는 빨리 일어나 걸었으면, 걷기 시작할 때는 빨리 말을 할 줄 알았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데 태어나 눈도 못 뜨던 아가들이 어느덧 21개월이 되었다. 이제 아가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주문할 줄도 알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교와 투정을 적절히 구사하기도 한다. 흐르는 시간이 아쉬울 만큼 시간에 가속도가 붙어 하루가 다르게 눈빛이 깊어간다.

2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비단 아가들만 자란 것이 아니다. 아가들을 한번이라도 더 웃게 하기 위해, 보다 좋은 것을 보고 들려주기 위해 고민하다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졌다. 내가 아가들을 키운 게 아니라, 아가들 덕분에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딸들~ 아빠가 비록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영웅은 아니지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너희들의 웃음을 지켜주는 우리 가족의 ‘슈퍼맨’이 될게!



역대 언론중재위원장 초청 간담회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1월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역대 언론중재위원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안우만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임규운, 김두현, 박영식, 조준희 전 위원장이 참석해 위원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왼쪽부터 박용상 위원장, 조준희(11대), 김두현(7~8대), 임규운(3대), 안우만(1~2대), 박영식(9~10대) 전 위원장

2015년 제1, 2차 교원연수 실시



위원회는 1월 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학교갈등관리를 위한 조정·중재와 언론 대응에 대한 교사직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정준영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황덕남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의 ADR 관련 특강을 비롯해 ‘즐거운 교실만들기’, ‘비폭력대화법’,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을 통한 갈등해결’, ‘우리 학생 마음 들여다보기’ 등 학생 지도 및 인성 교육에 필요한 강의뿐만 아니라 학교 관련 보도와 언론피해구제 등 언론보도 대응방법에 대한 강의, 언론사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위원회 부산사무소 확장 이전

위원회 부산사무소가 언론피해구제 관련 교육장 개설을 위해 지난 1월 30일 부산 수영로에 위치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8층에서 6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전화번호는 이전과 같다. (051)759-7083~4.

위원동정

COMMISSIONERS

신임 중재위원 위촉

1월 20일자로 중재위원 2명이 위촉됐다.

중재부	성명	현직	임기
서울제3중재부	조현욱	변호사 (법무법인 도움 대표)	2015.1.20. ~ 2015.8.31.
서울제5중재부	김희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2015.1.20. ~ 2017.3.30.

저서 ‘아규멘테이션’ 출간



박성희 위원(서울제8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장)은 수사학 관점에서의 ‘논쟁’의 개념과 형식, 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서 ‘아규멘테이션’을 출간했다.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



이은경 위원(서울제5중재부, 변호사)은 1월 12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임기는 3년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 선출



최낙준 위원(전북중재부, 변호사)은 1월 19일 전북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이다.

CASES

명예훼손 사례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 어뷰징(abusing)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 정정보도문 게재

A인터넷신문은 종합격투기 관련 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인 유명 가수 B가 대회 도중 부상을 입은 선수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10여회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인 유명 가수 B는 해당 선수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같은 보도가 짧은 시간 안에 수차례 보도되어 피해가 더욱 크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심리 다음 날 정정보도문이 게재됐다.

망자 소식에 신중치 못했던 방송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C방송사는 2014년 사망한 신청인 아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신청인 아들이 한 겨울에 안전장비도 없이 여름장화에 반팔 티셔츠 하나에 우비만 입고 산에 올라가서 작업했고, 이단으로 취급되는 특정 종교 소속의 신청인과 주변인들은 사람이 죽어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수사기관에 사망한 아들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 아들이 겨울옷에 등산용 겨울장화를 신고 그 위에 우의를 걸친 채 작업했으며, 아들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과 지인들이 전혀 슬퍼하지 않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수사기관에 수사하지 않도록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중재부는 망자에 관한 보도는 신중해야 함에도 조정대상기사는 부모가 종교에 매몰돼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해 유가족에게 큰 상심을 안겼다고 판단한 뒤, 피해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상의 피해구제보도와는 달리 프로그램 시작과 말미에 정정보도를 방송하도록 하고, C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일주일 간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상징적인 유감의 표시로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이끌었다.

양측의 과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중재부, 반론보도 결정

D신문사는 무급 인턴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사설에서 신청인 회사가 무급 인턴을 뽑아 정규 근로와 유사한 상시적 업무를 시킨다고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인턴 프로그램은 인턴사원제가 아닌 교육 프로그램이고, 사설에서 인턴 담당 업무라고 언급한 업무는 소속 부서의 업무로써 인턴 참여 학생에게 주어지는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참고한 신청인의 인턴 모집공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으나 피신청인 또한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사설을 작성한 점이 인정 되는 바 양측의 과실을 균형 있게 고려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범죄혐의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 기사삭제

B방송사는 어린이집 교사가 현장학습에서 몸에 좋은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벌레를 먹이려 했고, 아이가 새치기를 했으며 막대기로 머리를 마구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교사가 아이에게 벌레를 먹이려 한 적이 없고, 피신청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에게 별도의 확인 없이 학부모의 일방적인 제보에 의한 방송을 했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정적인 제목 하에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해당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신청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후, 신청인 측의 최종의견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기사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김미경 _ 2015년 새롭게 단장된 「언론  사람」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바뀌었네요. 그래도 기존에 제가 즐겨보던 ‘신동의보감’이 그대로 남아서 저희 가족이 올해도 건강하게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신년호 ‘특별기고’에서는 발레의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게 써 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음식이야기’도 재미있었는데, 대구어와 대구어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함께 실었다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음식이야기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의 집의 건강 지킴이 ‘신동의보감’ “배앓이”도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짧지만 완성도 있는 구성과 내용이 참 좋았던 신년호였는데요. 정작 중요한 언론과 중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론이 대중에게 파급되는 속도와 파장이 큰 만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현명하고 공정한 중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광표 _ 새해를 맞이하며 도서관에 들렀다가 주간 서적 코너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사보 「언론  사람」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참 알차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직원마당’의 “취업이라는 삶의 한 여정을 지나며”라는 기사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어렵게 취업해 신입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긴장이 풀려 나태해질 때도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장 난 취업 프로세스를 고치고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윤희 _ 특별기고 지면에 삼화와 함께 실린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발레의 역사’를 보며, 단순한 무용의 종류로 생각했던 발레의 역사를 아름답고 재밌게 다뤄 인상적이었고, 예술지를 보는 것처럼 전문성을 갖춰 유익했습니다. 「언론  사람」 신년호 첫 페이지의 간결한 목차(Contents) 만큼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점 역할과 어렵게만 느껴졌던 언론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박학다식해진 느낌입니다. 정보지는 두꺼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인문학과 건강예방법(신동의보감) 등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몸과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었고, 다음 호 「언론  사람」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www.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는 학생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하고,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체험을 통한 합리적 분쟁해결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방학 중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
- 언론분쟁 사례 소개
-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소개
- 모의조정 실습
- 위원회 심리실, 언론사 등 견학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 기간 : 겨울·봄방학 기간
- 시간 : 3시간
- 장소 : 위원회 강의실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 참고
edu.pac.or.kr
- 문의 : 교육운영팀 (02-397-3092~5)

※ 프로그램 내용은 선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